



9면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국제 테린도 사관학교 설립 건의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음 4월 16일) 제25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 지사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도, 코로나 진정국면 속 종합적 경제 방역책 마련 ‘경제 활력화·일상성 회복’ 8대 정책 중점 추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송 지사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멈춰선 지역경제와 일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해 전북경제를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올려놓으면서 도민들이 일상 속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3면>**

송 지사는 7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경제 활력화, 일상성(日常性)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전라북도 포스트 코로나19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방역’ 활동에 돌입한데 따른 전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보다 더 거칠고 더 강력한 기세로 다가올 경제 위기의 파

고를 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동시에 ‘경제 활력화’와 ‘일상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은 지난달 13일부터 6개 분야별로 도와 전북연구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TF’를 운영해 마련됐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는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 역동적 경제산업활동 추진,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미래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생활의 과학화로 일상성 회복,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 8대 정책이 담겼다.

8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경제 위기의 신호를 민감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회의체 운영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전북 농어축산물 판로 확대, 전북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역동적인 경제산업 활동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처를 찾는 기업에게는 규제

의 벽을 낮추고, 수출기업에게는 비대면 마케팅 지원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를 키우기 위하여 있던 일자리는 틈틈이 지켜내고, 새로운 일자리는 꼼꼼하게 찾는 등 다양한 고용안정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 ▲미래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 산업의 방향을 정비하고, 새산업에 6G 스마트도시 조성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 ▲‘생활의 과학화’로 일상성 회복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도민의 건강 보호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를 위해 공공의료 대학원 조속 설립,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 확대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제, 사회, 건강 등 각 분야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 등이 있다.

전북도는 8대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책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송 지사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우리 도가 앞장서겠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미래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기회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 19 선제적 대책 마련 브리핑에 송 지사가 경제 활력화, 일상성 회복에 대한 단기 피해수습 방안과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주시가 추진한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전주발 상생실험 노하우를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유했다.

토 · 일요일 신문 쉼니다.

전주발 상생실험, 전국으로 확산되나

김승수 전주시장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서우수사례 공유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 추진한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전주발 상생실험 노하우를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유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로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운동’, 경제위기로 일상이 무너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용충

격 속에서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켜내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정책을 소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이날 토크콘서트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빛났던 각 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경기불황

속 임차인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 △지역 상권 활력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 △마음을 이어 사람을 품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등 전주형 상생실험 노하우를 소개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시가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시민들의 삶에 녹아들어야만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시장 주요현안이나 중점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많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위기 대응, 시민들의 거대한 우울감 치유의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과 하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 영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창석 수원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 성과와 주민들의 삶의 변화,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을 수 차례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윤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